

15기 대경총련 중앙집행위원회 주체총화서

대경여대협 간부

0 총화서를 쓰기에 앞서...

총화서를 쓰기전에 사무실 청소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형클어져 있던 문서와 내 옷가지들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나의 모습이 이랬구나라는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고민이 엉켜있는데도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그냥 방이 지저분하다고만 생각하듯이, 내가 '그냥 힘들다'고만 고민한 것이 무척이나 부끄러웠습니다. 청소를 해가면서 내 고민도 이렇게 말끔히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았습니다.

올해 활동을 총화하고 다시 재총화과정까지 거치면서 스스로 승리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고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보되 한계지점에 대해서 패배감이 아닌 혁신의 과정이 될 수 있어야겠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루에도 열 두번도 넘게 고민이 바뀌기도 하고, 2005년에 대한 기대와 확신에 가득차 있다가도 2004년에 많이 부족했던 점 때문에 다시금 패배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재총화기간동안 전여대협 간부와와 총화, 영대 총학생회와의 3차까지의 총화하면서 무엇보다도 그간 내 고민에만 빠져 내 주위의 동지들을 둘러보지 않았던 것을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기 대경여대협의 건설에의 요구와 2005년 대경여대협에 요구되는 투쟁과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의 이런 저런 총화 속에서 의장님이 "전에는 열지 못했던 마음을 이제 열어가고 있다"고 이야기 한 것이 너무나 기쁘기도 했습니다.

길지않은 며칠간의 총화기간으로 고민이 완전히 정리되거나 할 수 없었지만, 나와 내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동안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보는 패배감에서는 조금씩 극복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둘러싸고 있던 문제들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언제쯤 해결될 지 기약도 없지만, 총화기간 전과 달리 이 문제를 내 조직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함께 풀어가야겠다는 각오를 하게된 것이 저에게 있어서 총화기간동안의 성과인 것 같습니다.

1 1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총화

1>15기 대경여대협 중앙집행위 간부를 결의하면서...

① 간부를 결의하게 되었던 과정과 결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이유 등

솔직하게 말하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보다 '해야되는구나'라는 인식이 먼저 생겼다.

간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하늘이 때문인 것 같다. 하늘이가 작년에 여대협 간부를 결의하면서도 나를 대구경북지역의 여학생운동을 하는 주체로 인식해주고 지역 여대협 간부를 결의하면서 나랑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과정이 있었다. (실제로 내 출신학교의 상황만을 보았을 때, 학교에서 내가 여학생운동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다지 여학생 운동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터라 지역 여학생 운동을 바라보는 안목은 보잘 것 없어서 나는 스스로 내가 대구경북지역의 여학생 운동의 주체이구나라는 생각도 잘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대구경북지역의 여학생운동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는 자각이 들게 되고 지역의 여학생운동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3월부터 하늘이는 내년에 같이 하자... 혼자 못하겠다... 등의 이야기를 해 왔으므로 자연스럽게 해야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겼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이유는 내가 작년에 학교에서 만나왔던 우리 반성폭력 연대회의 얘기를 때문이다. 나만 철썩같이 믿고 "언니...언니.."하던 얘기를 땀으로 학생운동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 이 아이들을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다. 특히나 지난 가을 내가 수술 때문에 갑작스럽게 입원하고 내가 학교를 두어달 비운 사이에 선거도 지고 해서 우리 연대회의 아이들은 반권 총학생회가 연대회의를 없애버릴꺼라는 불안감을 잔뜩 가지고 있었다. 우리 연대회의 얘기가 가만 눈망울에 눈물을 가득 담고서 나한테 "언니... 이제 우리는 해체되는거예요?" 이렇게 물어왔었다.

물론 이 아이들은 지금은 자기 단위로 돌아가서 단위의 요구대로 잘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때는 내가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당최 이 아이들이 눈에 밝혀서 그만둘 수가 없었다.

<요까지는 이전의 내용이구요...사실 이점이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아서요... 총화기간동안 이전에 써놓았던 수첩이나 동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의 결의를 더 알게 된 것을 덧붙였습니다.>

학교에서 운동을 하면서 중앙조직의 부재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던 점이 나에게 대경여대협 건설의 의지를 북돋게 했습니다. 물론 전여대협의 지도가 있기는 했지만, 대구경북지역에서 우리 여학생들을 지도하고 대경여대협 중심으로 묶어내고 이런 것에 굉장히 절실했고, 2003년 대경여대협의 간부로 결의한 일꾼이 대경여대협을 건설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대경여대협을 결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전여대협 의장이었던 강정은하동지가 수배를 받고 학교에 있는 것이 저에게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조직을 건설하고 중심에서 이끌어온 동지가 수배자가 되어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과 이 동지가 나를 믿어주었던 것,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대경여대협 간부를 결의하게 했습니다.

② 처음의 각오와 자세, 마음가짐 등은 어떠했는가?

이건 누구나 비슷할 것 같은데...

'정말 잘 해야겠다, 잘 하고 싶다' 이런 각오와 자세를 가졌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여학생 운동의 꽃이 활

짜 피는데 내가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잘 못해본 진짜 여학생운동을 해보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다. 학생운동 7년, 여학생운동 4년 반을 해왔지만 학교에서는 내가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 학교의 상황도 열악하고 해서 제대로 된 여학생운동을 해보지 못했다. 대경여대협 간부로 살면서 여학생 운동을 하는 활동가가 되고 싶었다.

<위의 것과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 덧붙일 것은>

총화기간동안 처음의 각오와 자세, 마음가짐이 계획성이 없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열의는 높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과제를 찾지 않은 것이 저를 많이 지치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계지점은 2004년 내내 저에게 혁신이 요구되는 한계지점이기도 했습니다.

2>15기 대경여대협 중앙집행위 간부로 생활했던 기간, 주체의 활동에 있어서...

① 주체의 운동적 삶에서 자신의 운동발전을 위한 목표는?

내가 앞으로 평생 해나갈 여성운동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싶었다. 정치 실무적 자질과 지역 운동판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가지는 것, 그리고 사상성과 조직성을 한층 높이는 것 등의 내 평생 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싶었다.

<이후의 것은 삭제하고... 첨가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토대를 마련해서 여성노동자, 여성농민과 함께 여대생들이 우리 운동의 주체세력이 될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시기 대구경북지역 여학생 운동에 요구되는 투쟁을 힘차게 벌여가면서 대경여대협과 지역운동에 복무하는 것 그것이 내 앞으로의 평생운동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② 그 목표를 실천하면서 주체의 운동적 삶에서 구체적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각각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모조리 새로 서술했습니다^^>

성과지점은 우선 지역 운동에 대한 감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과 내가 앞으로 할 운동에 대한 명확한 상을 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에만 있으면서 늘상 조직문제로 찌지고 뿔고 하는 중에 지역운동에 대한 안목은 편협했고 운동적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활동가로서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지역 간부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 운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학습이 담보되면서 운동 수준이 높아지고 사상적인 면에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학습이 계획성있게 시기에 맞게 잘 진행하기가 어려워 늘상 조금씩 하다 말다 하면서 학습에 대한 담보가 힘들었는데 지역 간부로 활동하면서 학습과 조직에 대한 총화로 사상적인 면이 작년 이맘때보다는 발전이 있다는 것이 성과지점입니다.

마지막 한가지는 여학생운동에 대한 전문성이 키워졌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여학생 운동을 하면서

도 학교단위에서 여학생 운동의 토대가 없다보니까 늘 스스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의심스러웠는데 올해 대경여대협 간부로 활동하면서 전문성이 많이 키워진 것 같습니다. 학교 일꾼들과의 만남에서 학교 일꾼들이 나에게 여성적 사고가 몸에 배어있다가거나, 여성문제에 있어서 관점을 잘 잡지 못하는 부분이나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생각이 나고 실제로 내가 꽤나 도움이 되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대경여대협 간부로서의 활동기간이 나에게 전문성을 키워지게 했다는 것이 성과지점입니다.

한계지점은 언제나 저에게 나서고 있는 몇가지 혁신과제입니다.

우선 아직까지 자기계획과 운동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많이 서투릅니다. 자기계획이 없다 보니까 몸은 바쁘지만 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로 남기에 좀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것 역시 저에게 중요한 혁신과제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비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상황타박만하는 문제점이 올해 저의 주체적 운동에 많은 한계지점을 남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부족해서 어리광을 가끔 부리는 습관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때 주저주저하면서 사업을 잘 진행시키지 못한 부분 역시 한계지점이자 혁신과제입니다.

3>1년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지점과 가장 나빴던 지점을 각각 5가지씩 꼽아본다면?

<이건 그대로 둔 것이지요^^ 재충화를 한다고 좋았던 것과 나빴던 것이 그리 달라지지는 않았는데요^^>

< 좋았던 점 >

① 대경여대협 총회와 출범식을 통해서 대경여대협을 건설했던 것 정말 너무나 기뻐다. 내가 학교에서 활동하면서는 총여도 제대로 건설을 못했는데 지역 여대협을 건설하게 되는 과정에서 있는 것이 참 기쁜 일이었다.

② 내 정치적 의사를 마구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학교에서 눈치를 보면서 하던 사상학습도 조직과 함께 할 수 있고, 어떤 사안에 있어서도 내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것

③ 대경총련과 조직생활을 함께 했던 것 나의 활동 담보가 많이 될 수 있었다. 혼자 대경여대협 간부를 하면서 그래도 나를 담보해줄 공간이 있다는 것이 많이 위안이 되었다.

④ 언니들이랑 같이 찜질방 갔던 것
⑤ 언제나 술을 먹을 수 있는 술꾼 동기들이 있는 것

<나빴던 점 >

① 늘 내가 다른 동기들보다 많이 부족한 것이 많이 힘들었다. 동기들에게 비판을 받는 횟수가 가장 빈번한 것이 스스로에게 부담감을 많이 주었다. 동기들의 비판을 받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그 상황이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빈번하게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고 고칠 부분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늘 마음속에 무겁게 있었다.

② 하늘이가 대경총련 정책위원장으로 결의하던 날... 나쁘다기보다 충격이 크고 막막했었다. 어찌해야할바를 몰랐다. 지역 상층단위에서 처음으로 활동해야하는

나로서는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어진 터라 시작하고 초반에 좀 힘들었다.

③ 사업을 벌여낼 때 좀 외로웠다.

대경총련 식구들과 같이 있지만 사업을 벌여낼 때 직접 논의를 할 사람이 없거나 가끔 전원회의 때 내가 많이 동떨어진 것 같아서 외로울 때가 있었다. 이것은 굳이 우리 동지들이 나를 외롭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행동해야한다는 부담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위낙에 내 사업은 나 혼자 벌여가야했던 적도 많아서 늘 같이 할 사람들이 혼자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좀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나를 빼놓고 밥을 먹으려간 일처럼 아주 별것 아닌 일이 생겨도 괜시리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다. 이런 내가 늘 혼자 사업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외로움으로 그랬던 것 같다.

④ 경북대에서 반성폭력 학칙이 너무 어이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4년 간의 노력은 온데간데 없이 반권 총학생회가 자기들이 다 한칙 하면서 반성폭력 학칙을 엉망일 만들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올해 나에게 손에 꼽히는 충격이었다.

⑤ 학교일꾼들한테 화나도 성질대로 못하고 화 못내고 참아야하고 늘 웃음을 보이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 굉장히 힘들다.

2 1년 국/위원회 사업에 대한 총화

1>대경여대협 사업의 올해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솔직히 향후 몇 년의 전망을 다 세우지 못했다. 총화서를 쓰면서 내가 얼마나 목적이 없이 살았는가 하는 반성이 들고 또 내가 얼마나 생각없이 운동을 하고 있었던가 하는데 있어서 반성을 하게 되었다.

대경여대협 간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16기를 꼭 건설해야겠다는 것과 기층 단위를 건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다. 대구경북지역의 여학생운동이 많이 취약하다보니 대경여대협도 세울 수 있다가 또 못세우다가 하는 모습이 많이 안타까웠다. 그러한 모습은 올바른 운동의 모습이 아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대경여대협 간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16기를 꼭 건설해야지 하는 다짐을 했었다.

그리고 여학단위들의 기층 단위가 부족해서 학생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꼭 동아리 운동이나 학우들에 기반하지 못하고 활동가들만 존재하는 정치조직같은 느낌으로 학교에 있는 모습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꼭 기층을 건설해서 학우들과 함께하는 여학생운동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지점들이 올해 대경여대협 사업의 목표였다.

<위의 것에서 총화기간동안 찾아낸 덧붙임...>

우리 대경총련 일꾼들 사이에서도 대경여대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도록 대경여대협의 사업을 대경총련에 적극적으로 알려나가면서 대경여대협이 우리 일꾼들 사이에서도 투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 역시 대경여대협이 해야할 몫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꾼들 스스로가 학우들의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기 위해서는 여학생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경여대협 사업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15기 대경여대협의 사업 목표

였습니다.

2> 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에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건 모조리 새로 썼습니다.>

눈에 띄는 조직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거나 하는 성과지점들은 잘 찾을 수 없지만 15기 대경여대협의 활동은 조금씩 성과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초반에 3.8 여성대회를 대경총련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직접 대경총련 중앙위에 사업을 제안하고 해나갔던 부분, 대경총련 일꾼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행했던 대경여대협 출범식, 5월 한마당 대구경북조직위에 직접 가입하고 5월 한마당을 준비해나갔던 부분은 대경총련과 함께 여학생 운동을 풀어가고자 한 성과점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한마당을 준비하면서 지역의 비권대학의 총여학생회에 연락하고 직접 만나서 5월 한마당을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대구경북지역의 여학생 운동의 토대를 만들어나가기려는 시도 역시 15기 대경여대협의 성과지점입니다.

또한 후속작업이 잘 진행되지 못한 한계지점이 존재하지만, 농활 사업에서 여학 단위가 없는 학교 단위까지 여농반 주체를 세워내었던 것들도 우리 일꾼들 사이에서 대경여대협에 대한 인식을 하게 만든 성과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들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경여대협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여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조직,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조금의 신뢰성을 주었던 것도 대경여대협 사업의 성과지점입니다.

한계지점은 대경여대협의 자체 사업이 부진했다는 것, 사업계획서가 나와도 집행대책이 꼼꼼하지 못해서 학교단위에서 대경여대협의 사업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했고 잘 집행되지 않은 사업도 많은 것, 계획성없는 사업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지점들로 인해서 학교 여학 단위 일꾼들을 대경여대협을 중심으로 묶어내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3>1년간 대경여대협 사업 활동을 경험하면서

①향후 16기 대경여대협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극복해야할 지점은?

15기 대경여대협이 자체 사업을 잘 해나가는 것과 대경여대협의 일꾼들의 수준을 높여내야 할 것 같다. 올해는 자체사업을 많이 벌여내지 못하면서 대경여대협의 일꾼들을 묶어내는데 많은 한계가 나섰던 것 같다. 그리고 대경여대협 일꾼들의 수준이 여학생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작한 일꾼들이 대부분이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엇을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많이 힘들었다. 그렇다보니 여학생 운동을 한다기보다 학생회로서 사업만 진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여기에 더 첨가하자면요...>

한계지점으로 나섰던 것이 모두 극복해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경여대협의 사업을 잘 벌여나기 위해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나가야 할 것과, 16기 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장기적인 전망을 세워나가야 할 것들이 요구됩니다.

②향후 어떻게 활동하면 더욱 발전적인 대경여대협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자체 사업을 학교단위와 잘 해나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학 일꾼들의 수준을 높여내기 위해서 일상적인 투쟁을 만들고 여성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이들이 학교에서 대경여대협의 사업으로 학우들을 잘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여학 일꾼들이 여학생 운동을 우리끼리 하는 운동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운동을 벌여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후의 것은 삭제 첨가했습니다.>

대경총련단위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함께 투쟁하면서 대구경북지역의 여학생 운동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구체적인 실천활동과 투쟁을 중심으로 여학일꾼들이 살 수 있도록 담보해주는 것들이 잘 진행된다면 앞으로의 대경여대협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체의 혁신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3 1년 대학 지도사업에 대한 총화

1> 지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학에 대한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학교 단위를 모두 포괄하는 가장 큰 목표는 기층을 건설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학교마다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영남대의 경우는 학교에서 대중적인 여학생 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새내기 일꾼들을 만드는 것, 동국대는 여학생 운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상주대는 고민을 잘 가지는 일꾼을 만드는 것, 경북대는 여학단위를 건설하는 것, 대구대는 여학생 운동의 인자를 만드는 것, 그리고 안동대는 총여학생회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해나가는 것이다.<조금첨가>

2>목표실현을 위해

① 구체적으로 지도사업자로서의 활동을 어떻게 가져왔는가?

영남대에서는 사업을 대중적으로 벌여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사업 형태를 바꾸어보려고 한 것과 일꾼들끼리 늘 그 안에서 위치이동하면서 인자 생산이 되지 않고 새내기 일꾼이 없는 지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모임을 만들고 새나기를 많이 만나도록 하도록 진행했다. 그리고 일꾼들을 잘 총화하기 위해서 조직회의를 총여랑 같이 하면서 일꾼들을 총화하려고 했다.

그리고 동국대는 여학생 운동에 대한 고민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여성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던져주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상주대는 대경여대협의 사업을 전달하면서 총여학생회의 활동에 있어서 잘못된 고민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

경북대는 개별적으로 단위에 들어가 있는 일꾼들을 만나는 방법으로 지도를 했다.

② 그 활동에서 지도사업자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원인은 무엇인가?

<모두 새로 서술했습니다.>

지도 사업자의 성과지점은 학교 상황을 파악하고 학교 상황에 맞게 학교 여학생 운동을 토대를 만들

수 있는 목표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계속 한계로 짚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지점은 학교별 추상적인 목표만 가지고 구체적인 꼼꼼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두루뭉실한 목표만 가지고 구체적인 방도 제시가 없어서 학교가 여학생 운동을 제대로 해 갈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한계지점입니다.

3>지도사업 대학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모두 새로 서술했지요>

영남대는 적은 일꾼에도 불구하고 대경여대협의 사업을 잘 받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과 총여 소모임을 만들어서 총여에 새내기들이 복적인 것이 성과지점입니다.

동국대는 운동을 해본적이 거의 없는 일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학우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동 총여학생회를 꾸준히 해가면서 일상적인 학우 만남 사업을 진행한 것을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한계지점은 후반부로 가면서 상주대, 안동대는 거의 만나지 못하고, 대구대에 대해서도 담보를 잘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상주대를 초반에 만날 때는 자신감에 가득차 있다가 상주대 일꾼들의 고민 수준이 높지 못하고 우리 일꾼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 상주대를 만나는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세적으로 만나기 보다는 그냥 사업만을 전달하는데 그치면서 지도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반성지점입니다.

그리고 안동대 역시 총여단위가 우리 단위가 아니고 총학생회 여성국장 역시 직책이 바뀌면서 거의 지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구대 역시 단위 여학부장님이 우리 단위로 잘 묶이지 않다보니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해나가지 못하게 되고 방학을 기해서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서 거의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초반에 계획하던 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대경여대협의 지도력이 떨어지고 학교단위가 대경여대협으로의 결합이 어려웠습니다. 지도사업에 있어서 금방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손을 놓거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도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지점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4>향후 지도사업 대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즉 그 대학에 대한 지도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욱 좋을지 조언을 한다면?

영남대는 최근에 새내기들이 총여에 조금씩 복거거리기도 한다. 이 새내기들을 잘 조직화하고 담보하는 방향으로 지도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대 전반의 문제이기도 한 실천 활동이 많이 부족한 지점을 잘 잡아주는 것과, 사업을 그냥 후다닥 헤치워버리는 경향을 학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동국대는 사실 내년의 총여 건설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다. 총여가 건설이 되면 총여가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아리 중심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총여 활동 역시 동아리 활동처럼 해가는 경향이 보이고 실천활동도 부족하다. 총여학생회라는 인식을 키워주는 것 역시 지도사업자가 잘 해나가할 몫인 것 같다.

상주대는 하루빨리 우리 고민을 가진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한 것 같다.

경북대는 학교 자체가 워낙에 여학생 운동에 대한 고민이 적어서 이제껏 키워놓은 아이들도 단위에 돌아가서는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학교 자체가 여학생 운동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는 방향으로의 지도사업이 필요하다.

<첨가할 점은요...>

전반적으로 모든 학교에 있어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방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일꾼이 없어서 만나기 힘들다고 하면서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꾸준하면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공세적으로 지도사업을 해야겠습니다.

대경여대협은 대경총련에서 지도하기 힘든 대학들에 대해서도 여성문제나 여학생 운동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지도사업을 하면 오히려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에 모두 함의를 하지 않아도 여학우들에 대한 이야기나 여성문제로 지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대학의 지도사업을 공세적으로 해나가야겠습니다.

4 중앙집행위원회 조직운영에 대한 총화

1>조직운영에서 주체가 임했던 자세는 어떠했는가?

비주체적인 관점으로 임했던 것 같다. 내가 조직운영에 주체라는 생각보다는 집행위원장님과 조직위원장이 알아서 하실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 소조모임 역시 소조짱에게 맡겨두기만 한 것 같다. 그렇게 주체적이지 못한 시각을 가지다보니까 전원회의 준비를 엉성하게 하기도 하고 학습을 게을리 하기도 하고 시간 약속을 어기기도 했던 것 같다.

2>조직운영에서 나서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조직운영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문제는 내가 동지들과 진정한 동지애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 문제는 나에게 나서는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동지들에게 속내를 허심하게 총화하지 못하고 그냥 사업적인 총화로만 그치는 모습을 보여오기도 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동지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울 때가 꽤나 있었다.

<더 첨가할 것은요...>

대경여대협 의장님을 보좌하는데에서도 문제지점이 많이 나셨습니다.

의장님에 대한 보좌를 하는데 있어서 내용적인 면을 계획성없이 그때그때 나설때마다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경여대협 의장님이 내내 발언을 하시는 자리에서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의장활동을 수행하시면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잘 해결해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비판지점이 있을때도 비판을 적절하게 하기 보다는 감싸거나 모른척 하면서 나서는 문제들을 혁신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었습니다.

의장님의 학연이나 운동에 대한 준비정도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의장님에 대한 깊은 총화를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총화기간을 거치면서 의장님을 잘 총화하지 못하고 보좌를 잘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3>중체적으로 15기 대경총련 조직운영에서 혁신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가?

회의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은 것이 우리 모두에게 나서는 큰 혁신지점인 것 같다. 회의시간을 기다리

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 같다. 나부터도 오전에 전원회의가 있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총화서를 쓰느라 전체의 조직운영에 피해를 준적이 한 두번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소조모임이나 학습등의 운영이 일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 역시 혁신해야 할 지점인 것 같다. 소조모임과 일정을 사수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사람들의 일정을 피해서 잡다보니까 시간적인 담보가 잘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도 했거니와 내 스스로 주체가 되기보다는 소조짱이 모이자고 이야기할 때까지 조직위원장님이 학습하자고 이야기할 때까지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다.

조직운영에 있어서 시간엄수와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운영, 그리고 스스로의 적극성이 혁신해야 할 지점인 듯하다.

4>소조모임에 대한 전반적인 총화

전반적으로 소조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 같다.

소조모임이 잘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깊숙한 개인적인 총화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학습도 잘 담보되지 않았던 것 같다.

5>세로모임에 대한 전반적인 총화

대경여대협 조직운영은 주 1회 회의와 학습과 상시적인 총화를 하는 것으로 운영을 했다. 처음에는 주 1회 회의가 그런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회의가 서로의 일정총화 수준을 넘지 못하기도 하고 제대로 성사되지도 못했다. 조직운영에 체계와 규율성, 계획성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대경여대협 대표자 회의는 대표자들의 결정사항이 있을때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대표자들의 논의가 필요할 때 계기가 되었는데 초반에는 진행이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잡아놓고도 잘 성사하지 못했다. 구성원의 의장님, 영대 총여 부회장님, 동국대 총여회장님, 상주대 총여회장님인데 영대 총여 부회장님이 학교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상주대가 잘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대경여대협 대표자 회의를 사수해야한다는 대경여대협의 적극성이 많이 부족했다.

5 향후 자신의 운동 전망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제총화기간을 거치면서 다시한번 16기 대경여대협 건설의 절박성과 주체에 대한 요구성을 고민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에게 집에서의 문제는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문제를 조직적으로 함께 풀어가면서 조직의 요구와 주체의 요구를 일치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나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정리해가려고 합니다.

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재충화기간을 거치면서 동지들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반성도 많이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후에 동지들의 지속적인 도움으로 주체의 문제와 고민을 정리해가려고 합니다.

동지들이 많이 힘이 되어주셨으면합니다.

7 다른 동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지난번에 다해서요^^;;

15기 대경총련 중앙집행위원회 주체총화서

대경여대협 의장

1

1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총화

1>15기 대경총련 중앙집행위 간부를 결의하면서...

- ①간부를 결의하게 되었던 과정과 결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이유 등
- ②처음의 각오와 자세, 마음가짐 등은 어떠했었는가?

총여학생회 새내기 새로 배움터 자방단을 하면서 여학생운동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운동이 뭔지, 한총련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1학년 때는 그렇게 사람이 좋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함께 하고 싶었다. 이 때가 나에게 가장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다. 2학년 때는 과로 들어가라는 제안을 받았다.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없이 막연해서 처음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였다. 1학년 때 친하게 지내지 못했던 과 친구들과 후배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생활을 함께 했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못하고 운동적 성과를 찾기에 는 나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3학년 때 정행대 여학생회장을 하면서 자주적 학생회의 깃발을 꽂았다는 자부심과 함께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 만큼 위축되어 사업을 한 적도 있었다. 학우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나섰지만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기간이었다. 4학년 선거논의를 하면서 처음에는 부회장으로 제안을 받았다. 회장후보였던 미경이 언니를 믿고 잘해보고자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끝내 언니가 결의를 하지 못하고 다시 총여학생회장으로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은 두려움이 나섰지만 의외로 쉽게 결의를 했다. 영대에서 여학생운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은하언니와 혜정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외롭게 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늘 운동을 외롭게 느끼고 있었던 터라 함께라면 잘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과정에서 대경여대협 의장 제안을 받았다. 제안을 받았을 때 일정정도의 호기심도 있었고 대경여대협을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학교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결의를 할 때 은하언니와 혜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의를 쉽게 할 수 있었는데도 모른다. 하지만 결의 과정에 혜정과 총화가 잘 되지 않아서 혜정이 스스로 이 문제에 소외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 부분에서 나의 적극성이 없어서 문제 해결이 더 늦어졌던 것 같다.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감이 없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마냥 좋고 다른 학교 일꾼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여대협 의장으로서의 나의 목표와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2004년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학생운동을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시켜보겠다는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다.

2>15기 대경총련 중앙집행위 간부로 생활했던 기간, 주체의 활동에 있어서...

①주체의 운동적 삶에서 자신의 운동발진을 위한 목표는?

이제 4년째 이곳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한 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 1,2학년 때는 어떠한 곳에 소속되어서 무엇을 계획하고 만들어 나간 적이 없고 3학년 때에도 단대 여학생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언니들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앞섰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그것이 올 한해 활동하면서 많은 문제를 남게 한 것이다.

②그 목표를 실천하면서 주체의 운동적 삶에서 구체적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각각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주변의 비판을 받으면서 목표를 세우고 삶을 계획하는 것에 대한 감을 잡았다. 우선 초기단계로 누구를 만나든 약속을 잡고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짧은 기간의 계획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장이라는 지위에 맞는 나의 활동을 하지 못했다. 우선 조직생활을 잘 만들어가지 못했다. 그 이전까지 제대로 된 조직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감을 잘 못 잡은 것도 있고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나의 사업으로 느끼고 열정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다. 그것이 함께 하는 간부에게 늘 미안한 부분이다. 나의 적극성이 발휘되지 못하다보니 간부가 그 몫을 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영남대 새올이라는 소모임도 꾸렸지만 그것이 총여학생회의 성과는 될 수 있겠지만 나의 성과로 생각하진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에게 마음을 다 주지 못할 때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 또한 아이들을 잘 챙겨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게 하는 기간이었다.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장이라는 지위를 맞게 되다보니 내가 아는 것 이상을 해내야 할 때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몰라도 아는 척하는 나쁜 버릇이 생겼다. 이것은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였다. 일꾼들에게 투쟁의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러한 적이 많았고 정치연설을 해도 잘 모르면서 어디서 주위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나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3>1년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지점과 가장 나빴던 지점을 각각 5가지씩 꼽아본다면?

★좋았던 점 : 1. 대경총련에서 모교지 간 것 2. 바다언니가 대경여대협 간부한 것 3.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은하언니가 열심히 살았고 내년도 힘차게 결의하고 있는 것 4.

★나빴던 점 : 1. 혜정이 그만둔 일 2. 잘 못해서 늘 비판받을 때 3. 잠수탄 것 4. 하늘이 언니가 대경총련 정쟁위원장이 된 것(이것은 나빴다기 보다는... 슬프고 허전했다...) 5.

2

1년 국/위원회 사업에 대한 총화

1>국/위원회 사업의 올해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기층을 건설·강화하고 새여성운동을 실현하는 것이다.

2>목표를 실천하는 과정에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5년만에 대경여대협을 건설해서 지역에 대경여대협을 인식시키고 여성단체들과 연대하여 투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 여대협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대표자회의를 계획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여대협만의 뚜렷한 사업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학교 하방을 중심으로 거의 활동을 했지만 그것 또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진행하다보니 그 학교 실정에 맞는 하방을 진행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계만을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치사상적으로 도움을 주고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새여성운동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나부터 부족한 상황에서 기층에서 이것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지역에서 새여성운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체부터가 먼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여대협 조직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로를 총화하고 계획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서로 더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3>1년간 자신의 국/위원회 사업 활동을 경험하면서

①향후 16기 대경총련 국/위원회 사업에서 핵심적으로 극복해야 할 지점은?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대학지도사업의 장기적 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 여대협만의 사업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②향후 어떻게 활동하면 더욱 발전적인 국/위원회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일꾼에 대한 꼼꼼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 전망을 함께 내다보면서 사업을 하면 좋을 듯 하다. 여학생운동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엇보다 사람사업을 잘 하여 여학생운동을 하는 일꾼 육성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1년 대학 지도사업에 대한 총화

1>지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학에 대한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민학을 지도사업하면서 일관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못했다. 늘 한시적이고 사업과 투쟁이 제기될 때 그에 맞는 목표만을 세워왔다. 내가 지도했던 곳은 동국대, 대구대 사범대,

영남대였는데 모두 상황이 달랐다. 그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세우지 못해서 하방을 가면서도 성과적으로 지도하지 못했다.

2>목표실현을 위해

①구체적으로 지도사업자로서의 활동을 어떻게 가져왔는가?

②그 활동에서 지도사업자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원인은 무엇인가?

대학을 지도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학교의 상황도 파악해야 하고 일꾼들과도 친해져서 서로 마음을 터놓아야 하고 일상적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매일 가보지 못하니 자주 연락해서 알아봐야 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일꾼들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얼굴을 익히는 것을 중심으로 어떤 일꾼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방을 하는 과정에서 그 대학의 문제는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잘 세우지 못했다.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는데 지도대학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

3>지도사업 대학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고,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영남대같은 경우는 늘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 서로 하방을 하고 지도를 받는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영대에서는 여대협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나의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대학만큼의 고민을 하기 힘들어 했다. 다른 대학을 다녀오면 그만큼의 시간이 비어서 활동호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간부는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총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늘 같이 생활을 하면서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지도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총여성회 소모임을 건설하여 새내기들을 총여성회로 더욱 굳건히 묶어내고 있다. 소모임 아이들과 파병반대 촛불집회도 함께 가는 등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했다. 하지만 소모임을 운영하던 경험의 부족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소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대구대는 1학기 이후 만나지 못했다. 여성부라는 체계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1학기에는 여대협 사업을 해설하는 것을 진행하여서 여성역사기행 등을 함께 진행하고자 하였다. 방중에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하여 2학기에는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서 여대협을 잘 해설하고 우리의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을 가지고 나가야 할텐데 너무나 부족했다.

동국대는 대중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학우 만남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수요카페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학우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고민을 계속적으로 했다. 직접적 학우 만남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화장실 신문을 만들어서 학우들에게 총여성회 사업을 알려 내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대중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여학생운동을 고민하는 일꾼이 부족하여 내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대협 사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 전여대협 총회를 2번 다 참여하지 않았다. 의장님을 선출하고 강규개정을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다. 그만큼 지도사업자의 정치적 해설이 부족했다.

4>향후 지도사업 대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즉 그 대학에 대한 지도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욱 좋을지 조언을 한다면?

동국대 ; 동국대는 일꾼들의 여학생운동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다. 지도사업을 할 때 짧은 교양을 상시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총여 내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만큼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지도자가 함께 학습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구대 사범대 ; 여학부장님이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고 학내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지만 전 여대협, 한총련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다. 먼저 우리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나 메일을 통해 연락을 자주해서 친분을 쌓아야 한다.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므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또한 여성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사범대 내에서 여성부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

영남대 ; 영남대는 주위에 새내기들이 많고 소모임을 꾸렸으나 명확한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소모임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심을 잘 잡지 못한다.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과 지속적으로 사람을 만나가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지도해야 한다.

4 중앙집행위원회 조직운영에 대한 총화

1>조직운영에서 주체가 임했던 자세는 어떠했는가?

회의를 할 때 어려움이 나서서 늘 어려워하고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 중집들과의 만남도 많지 않아서 서로의 일상적인 일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2>조직운영에서 나서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며,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 것이 크다. 원인은 주제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모르면 알려고 하고, 먼저 찾아가야 하는데 늘 게을렀다. 사람사이의 관계나 사업과 투쟁을 대하는데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고민하지 못해서 어떤 것이든 실천에 문제가 나셨다.

3>총체적으로 15기 대경총련 조직운영에서 혁신해야 할 지점은 무엇인가?

시간을 잘 지켜서 회의를 제 시간에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총화서를 회의 직전에 쓰면서 회의를 늦게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업계획서 등을 일상적으로 토론하고, 회의 때는 결의를 모으는 자리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 전에 토론이 없다 보니 회의에 와서 토론을 시작하고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4>소조모임에 대한 전반적인 총화

소조모임에서 서로의 학습을 봐주고 생활총화도 꼼꼼하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만큼의 역할을 못했다. 주제들의 적극성도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러한 자리에서 진원회의 때의 사업계획서도 함께 토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5 향후 자신의 운동 전망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이번 영대 여성문화제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일로 행사 당일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아이들이 많았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내가 아이들을 마음으로 대하고 챙기지 못했다는 반성이 들었고 아이들도 정말 자신의 일이고 언니들의 일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한 것 같았다. 많이 아쉬웠고 그만큼 반성도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하고 싶은 것이 생겼다. 이것이 내년 나의 운동적 목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내년에는 1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람사업을 하고 싶다. 소모임을 더욱 튼튼히 꾸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새내기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나의 운동 전망을 더욱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겠다. 졸업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다가도 마음이 수신편도 더 바뀌는 요즘이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편안해지다가도, 어떨 때는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다.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한 요즘이다.

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대경총련 총화대회가 끝난 후 대경여대협 총화대회를 3번에 걸쳐서 진행했다. 그 동안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것부터해서 올해 운동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등등을 이야기했다.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내가 나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의 솔직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나의 고민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7 다른 동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의장님 : 학교에 있을 때는 이야기도 자주 나누었는데 올해는 그럴 기회가 잘 없었네요. 서울 한복판에 혼자 서있다고 느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의장님이 힘들어하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다가가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 것만큼 자신도 즐거워할 수 있으면 해요.

★집행위원장님 : 늘 뭘 잘못해서 혼나지 않을까 걱정했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몸이 늘 아픈데 괜찮냐고, 아프지 말라는 말 한마디하지 못했네요. 올해 많은 부담을 느꼈을텐데도 속상한 일도 많았을텐데 정말 존경스러울만큼 모범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처장님 : 이렇게 저렇게 비판도 잘 안 받고 잘살 수 있을까 부러웠어요. 못하는 것도 없고 항상 자신감도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바다언니 말이 지민이언니는 정말 예쁜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한다고요. 좋은 사람을 빨리 만나길 바래요.

★정책위원장님 : 언니가 연애를 한다니 정말 놀라워요. 예전에 제가 언니 연애하기 전에는 연애 안 하겠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요? 그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해요. 한동안 언니가 힘들어 보였는데 이제는 더 많이 웃으시면 좋겠어요. 언니가 웃으면 그 일은 진짜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요? 언니는 웃을 때 정말 예뻐요. 그리고 언니가 대경총련 정책위원장을 하기로 했을 때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근데 가지 말라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땐 언니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참 허전했답니다.

★연사위원장님 : 처음에는 친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이제는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해도 되죠? 선배가 면을 좋아해서 밥을 잘 안 드실 때 걱정이 많이 됐어요. 밥도 꼭 챙겨드세요. 건강해야 운동도 열심히 하죠. 저도 만화책 보는 거 좋아하는 데 나중에 정액 끊어서 같이 만화책 보러 가요.

★조직위원장님 :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주 행복해 보여요. 제 걱정이 많으신 거 같아서 죄송해요.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되어서 저도 아쉬워요. 집에 일이 많은데도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걸의를 하시고 열심히 사는 모습 모범이에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선배처럼 똑똑해지고 싶어요. 작년에 저보고 내기하자고 한 거 기억나요? 선배는 나보다 플랑 잘 쓰고, 난 선배보다 더 똑똑해지기 내기하자고 했었잖아요.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이제 분발해야겠어요. 참! 저 플랑 쓰는 것도 늘었어요.

★조통실장님 : 별말 없이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웃으면 기분이 좋다는 언니 얘기 듣고 기분이 참 좋았어요. 나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대경총련에 와서 어려운 점도 많았을 텐데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 같아요. 술은 잘 못 마시지만 나중에 같이 술 한잔하면서 많은 얘기 나누었으면 해요.

★투쟁국장님 : 먼저 다가와서 이것저것 조언해 주셔서 감사해요. 선배를 보면 제가 의장님 인게 뿌듯해져요. 좋은 만나셨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선배에게 그런 분이 계신 줄 몰랐거든요. 아주 오래 잘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존중하면서요. 선배는 웃으면 참 귀여워요. 지영이언니랑 같이 술 마실 때 선배도 같이 마셔요.

★대경어대협 집행위원장님 : 어제도 얘기했지만 언니를 만나면서 마음변화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잘해주고 싶었어요. 영대에서 많이 어려워하면 이찌나 걱정도 되었구요. 그 다음에는 자꾸 언니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롯데리아에서 이야기 나누었을 때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언니가 사회 진출을 고민할 때 언니가 어딘가로 간다는 생각에 눈물도 났어요. 서로를 더욱 배려하고 알아나갔으면 해요. 제가 언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언니가 좋아했잖아요. 그게 참 미안했어요. 제가 마음이 좁아서 언니를 의롭게 만든 것도 같구요. 제가 수양을 더 해야겠어요. 언니의 지금 어려움 어떻게 함께 해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하고 싶어요. 투정부러서 미안해요, 언니.